2024학년도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역 사

수험 번호 : ( ) **성 명 : ( )**

제1차 시험	2교시 전공A	12문항 40점	시험 시간 90분

○ 문제지 전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시오.
○ 모든 문항에는 배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1. 괄호 안의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고,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2점]

> 자연과학은 (㉠)하는 것이고 역사는 이해하는 것이라는 딜타이(W. Dilthey)의 주장과 달리, 포퍼(K. Popper), 헴펠(C. Hempel) 등의 실증론자들은 자연과학의 연구 방법을 역사 연구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에 따르면, 역사 인식의 논리와 방법은 이해보다 (㉠)에 가깝다. 따라서 이들은 사건에 선행하는 조건과 역사적 경험을 통해 검증된 (㉡)(으)로부터 출발하여, 연역적 사고를 통해 역사를 인과적으로 서술한다.

2. 밑줄 친 ㉠과 ㉡이 규정한 공통의 대통령 선출 방식을 쓰고, (나) 선언 직후 시작된 사건의 명칭을 쓰시오. [2점]

> (가)
> 1.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 ㉮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 ㉯ 집회, 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 전파 수단이나 문서, 도서,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청원, 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
> (나) 귀와 눈은 진리에 대해 첩첩이 봉쇄되어 저들의 날조된 선전과 허위에 염증을 앓고 있고 … (중략) … 탄식하며 좌시할 수 없음을 이 푸르고 높은 10월의 하늘과 더불어 맹세코자 한다. … (중략) … 모든 경제적 모순과 실정을 근로자의 불순으로 뒤집어씌우고, 협박, 공포, 폭력으로 짓눌러 왔음을 YH 사건에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저들의 입으로나마 나불대던 민주공화국의 형식 논리마저도 이제는 부정함을 야당 파괴 음모에서 깨닫게 하여 주었다. … (중략) … 학우여! 오늘 우리의 광장은 군사 교육장으로 변하였고 자유로운 토론은 정보원과 그 앞잡이 상담 지도관과 호국단이 집어 삼키지 않았는가!
>
> (다)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후임자에게 정권을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본인은 평화적인 정부 이양과 서울올림픽이라는 양대 국가 대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개헌 논의를 지양할 것을 선언합니다.

3. 괄호 안의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고, 괄호 안의 ㉡에 들어갈 인명을 쓰시오. [2점]

> 평화 시 인민 정부의 원동력이 덕성이라면, 혁명 시 인민 정부의 원동력은 덕성인 동시에 (㉠)입니다. 덕성이 결여된 (㉠)은/는 흉악하지만, (㉠)이/가 결여된 덕성은 무력합니다. (㉠)은/는 신속, 준엄하고 확고부동한 정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은/는 덕성으로부터 도출된 것입니다. 그것은 특수한 원리라기보다 조국의 더 긴박한 요구에 적용된 민주주의 일반 원리의 소산인 것입니다.
>
> –(㉡), 「국민공회가 마땅히 따라야 할 정치 도덕의 원리에 관하여」–

4. 괄호 안의 ㉠에 공통으로 들어갈 명칭을 쓰고, 괄호 안의 ㉡에 공통으로 들어갈 명칭을 쓰시오. [2점]

> (가) 第三十武王 名璋 母寡居 築室於京師南池邊 池龍交通而生小名薯童 … (중략) … 聞新羅眞平王第三公主(㉠) 美艶無雙 剃髮來京師 以薯蕷餉閭里群童 群童親附之 乃作謠誘群童而唱之云 (㉠)公主主隱 他密只嫁良置古 薯童房乙夜矣卯乙抱遣去如 … (하략) …
>
> –『삼국유사』–
>
> (나) 我百濟王后 佐平(㉡)積德女 種善因於曠劫 受勝報於今生 … (하략) …
>
> – 익산 미륵사지 출토「금제사리봉영기」–
>
> (다) 甲寅年正月九日 奈祇城(㉡)智積 慷身日之易往 慨體月之難還 穿金以建珍堂 鑿玉以立寶塔 巍巍慈容吐神光以送雲 戔戔悲貌含聖明以 … (하략) …
>
> –「부여 (㉡)지적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5. (가)는 2022 개정 역사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 연수 자료이고, (나)는 연수 후 교과 협의회 장면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교사 연수 자료

1) 2022 개정 역사 교육과정 설계의 개요

역사과 공통 교육과정은 '역사'로 구성되었으며,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공통 과목 및 선택 과목으로 구성된다. 공통 과목은 '(㉠)'이다. 선택 과목은 일반선택 과목인 '세계사', 진로선택 과목인 '동아시아 역사 기행', 융합선택 과목인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의 세 과목이다.

-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7] -

2) '세계사' 과목의 변화

(A) 2015 개정 '세계사' 교육과정 내용 체계

대주제	소주제
인류의 출현과 문명의 발생	• 세계사 학습의 필요성
	• 인류의 출현과 선사 문화
	• 문명의 발생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	•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
	• 동아시아 세계의 발전
	• 동아시아 세계의 변동
서아시아·인도 지역의 역사	• 서아시아의 여러 제국과 이슬람 세계의 형성
	• 인도의 역사와 다양한 종교·문화의 출현
유럽·아메리카 지역의 역사	• 고대 지중해 세계
	• 유럽 세계의 형성과 동요
	• 유럽 세계의 변화
	• 시민 혁명과 산업 혁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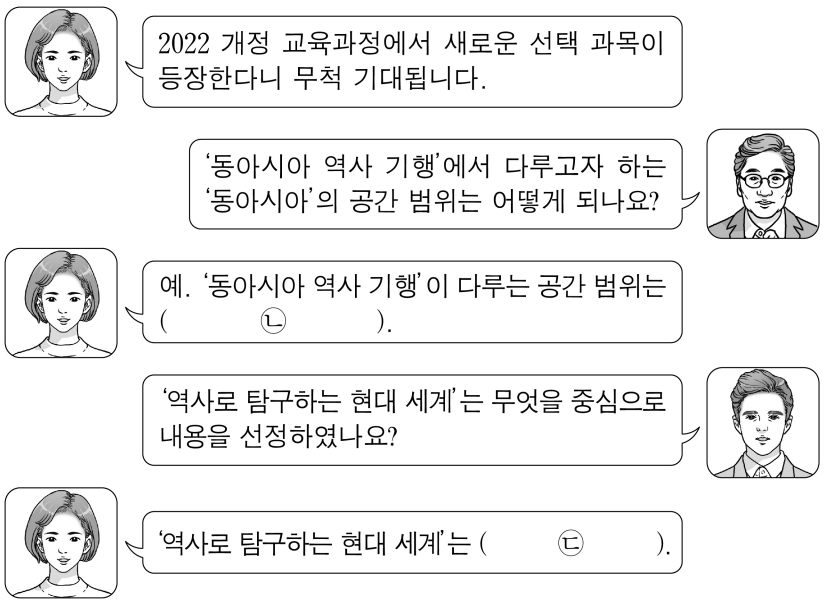
-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

(B) 2022 개정 '세계사' 교육과정 내용 체계

범주		내용 요소
지식·이해	지역 세계의 형성	• 현생 인류와 문명의 형성 • 동아시아, 인도 세계의 문화와 종교·사상 • 서아시아, 지중해, 유럽 세계의 문화와 종교
	교역망의 확대	• 이슬람 세계와 몽골 제국 • 유럽의 신항로 개척과 재정·군사 국가 • 세계적 상품 교역
	국민 국가의 형성	• 청, 무굴 제국, 오스만 제국 •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 • 산업 혁명과 제국주의 • 국민 국가 건설 운동

-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 7] -

(나) 교과 협의회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에 들어갈 과목명을 쓸 것.
- (B)의 특성을 내용 조직 방식 측면에서 (A)와 비교하여 서술할 것.
- 괄호 안의 ㉡과 ㉢에 들어갈 내용을 서술할 것.

6.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이에 앞서 야율아보기는 ㉠ 오랫동안 중국을 공격하려는 뜻을 지녀 병사들을 모아 크게 일어나고자 하였으나, (㉡)이/가 자신의 후방을 침범할까 우려하였다. 군대를 일으켜 (㉡)의 요동을 토벌하고, 독뇌(禿餒)와 노문진(盧文進)에게 명령을 내려 영주(營州)와 평주(平州) 등에 웅거케 하고, ㉢ 우리의 연주(燕州)와 계주(薊州) 일대를 어지럽혔다. 명종(明宗)이 제위를 이은 초기에 요곤(姚坤)을 보내 서신을 가지고 상사(喪事)를 알리게 하였다. 요곤이 서루(西樓)에 이르렀는데, 마침 야율아보기가 (㉡)에 있다고 하여 또 신주(愼州)로 가게 되었다. 험한 산길로 만 리(里) 거리였다.

- 요곤(姚坤), 『요곤사요(姚坤使遼)』* -

* 『요곤사요』: 후당 명종 천성 원년(926) 요나라로 파견된 사신 요곤의 사행 기록

(나) 해(奚)와 (㉡)의 풍속은 연주(燕州)와 유사하지만 (㉡)은/는 오랑캐의 말[夷語]로 말한다. 그 백성은 대개 가옥에 거주하는데, 기와가 없고 흙으로 쌓아 올렸고 혹은 자작나무의 껍질로 지붕을 덮었다. 해인(奚人)은 산에서 벌목하고 뭍에서 씨를 뿌리며 나무를 깎아 수레를 만드는 것을 업으로 한다. ㉣ 거란의 수레는 대개 해인에게 의지하였다. … (중략) … 중경(中京) 지역은 본디 열매는 자랐지만, 재배하는 것은 그다지 번성하지 않아 거란인들은 곡물, 과실, 박[瓠] 등을 대개 연주에 의지하였다. 곡식은 수레로 운반하고 과실이나 박은 말을 이용해 조정[虜庭]으로 보냈다. ㉤ 산의 남쪽에는 연주와 계주 등 여덟 주가 있었는데, 의관이나 언어가 모두 옛 습속대로였다.

- 심괄(沈括), 『희녕사로도초(熙寧使虜圖抄)』** -

** 『희녕사로도초』: 북송 신종 희녕 8년(1075) 요나라로 파견된 사신 심괄의 사행 기록

<작성 방법>

○ 밑줄 친 ㉠과 ㉢의 결과로, 밑줄 친 ㉤ 상황을 초래한 사건을 서술할 것.
○ 괄호 안의 ㉡에 공통으로 들어갈 국명을 쓸 것.
○ 밑줄 친 ㉣의 이민족 정책의 특징을 (나)를 참고하여 2가지 서술할 것.

7.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1910년 이전 「(㉠)관제」의 주요 내용 변화

	공포 연월	조항	내용
A	1895. 03.	1조	(㉠)은/는 내각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사·의정하는 곳이다. 1. 법률·칙령안
B	1898. 11.	1조	(㉠)은/는 다음의 사항을 심사·의정하는 곳이다. 1. 법률·칙령의 제정·폐지 혹은 개정에 관한 사항

(나) 1910년 이후 「조선총독부 (㉠)관제」의 주요 내용 변화

공포 연월	C 1910. 09.	D 1915. 04.	E 1921. 04.
1조	조선총독부 (㉠)은/는 조선총독에 속하여 조선총독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조선총독은 (㉠)(으)로 하여금 조선의 (㉡)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을 조사시킬 수 있다'를 추가함.	좌동(左同)
2조	다음과 같은 직원을 둔다. … (중략) … 찬의 20인(칙임 대우) 부찬의 35인(주임 대우) … (중략) …	다음과 같은 직원을 둔다. … (중략) …	다음과 같은 직원을 둔다. … (중략) … 참의 65인(칙임 또는 주임 대우) … (중략) …
4조	고문은 원의(院議)를 심정(審定)한다.	좌동	'고문'을 '고문 및 참의'로 개정함.
5조	찬의 및 부찬의는 원의에 참여한다. 단,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좌동	조항 삭제

(다) 조선의 제도 및 (㉡)을/를 조사하여 시정의 참고 자료로 제공하는 것은 통치상 최고로 긴요한 일로 총독부를 설치한 이래 취조국과 (㉠)에서 속행하던 것이다. 조사 서류와 보고서 등은 상당히 성립되어 있으나 이를 시정의 자료로 제공하여 참조하려면 한층 더 조사의 범위를 확장하고, 그 진보를 도모해야 … (하략) …

- 『매일신보』 1921년 4월 30일 -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에 공통으로 들어갈 명칭을 쓰고, (가)에서 A를 B로 개정한 이유를 서술할 것.
○ 괄호 안의 ㉡에 공통으로 들어갈 명칭을 쓸 것.
○ (나)에서 D를 E로 개정한 이유를 서술할 것.

한국교육과정평가원

8.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내전의 참화를 진화하고 모두의 동의에 따라 전권을 행사했던 집정관 6선과 7선 임기 중, 나는 로마 원로원과 인민에게 공화국을 이양했다. 이러한 공을 기리는 의미로 원로원은 나를 (㉠)(이)라 칭할 것을 결의하였다. … (중략) … 이때부터 나는 권위로 모든 이를 능가하였으나, 내가 임한 관직의 동료들보다 더한 공적 권력을 지니지 않았다.

- (㉠), 『업적록』 -

(나) 안토니우스의 몰락 후, 그리고 오랜 병환에서 회복된 후, 두 차례에 걸쳐 (㉠)은/는 권력을 내려놓고자 했다. 그럼에도 자신이 사인(私人)으로 돌아갈 경우 신변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또한 다수의 손에 국가를 맡기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으로, 그는 권력을 유지했다. … (중략) … 그는 누구도 ㉡ 새로운 체제에 대해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 … (중략) … 그는 두 권 분량의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 (중략) … 그는 계승자로 티베리우스를 지명하였으며 재산의 2/3를 남겼다.

- 수에토니우스, 「신격 (㉠)의 생애」 -

(다) (㉠)은/는 자신이 민주적인 인물로 보이기를 바랐다. … (중략) … 실제로 그는 좀 더 약한 속주들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라며 원로원에 반환하였다. 하지만 더 강력한 속주들은 분쟁이 터지기 쉽거나, 적대적인 이웃을 두고 있거나, 심각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자신이 통수권을 가졌다. … (중략) … 이때부터 ㉢ 로마에 진정한 '일인 지배'가 도래했다.

- 디오 카시우스, 『로마사』 -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에 공통으로 들어갈 인명이자 호칭을 쓸 것.
○ 밑줄 친 ㉡의 명칭을 쓸 것.
○ 밑줄 친 ㉢의 이유를 (나)와 (다)에 의거하여 각각 1가지 서술할 것.

9.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임진년 재조(再造)의 은혜는 만세토록 잊을 수 없는 것이다. 선왕께서는 40년 동안 재위하시면서 지성으로 섬기며 평생 서쪽을 등지고 앉지도 않았다. 광해는 배은망덕하여 천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속으로 다른 뜻을 품고 오랑캐에게 성의를 베풀었다. ㉠ 기미년에 오랑캐를 정벌할 때는 은밀히 수신(帥臣)에게 동태를 보고 행동하게 지시하여, 끝내 전군이 오랑캐에게 투항함으로써 추한 소문이 사해(四海)에 퍼지게 하였다.

- 『인조실록』 -

(나) 천총(天聰) 원년 정월 병자일. 버일러[貝勒] 아민(阿敏) 등에게 대군(大軍)을 이끌고 가서 조선을 정벌하라고 명하였다. "조선은 오랫동안 우리에게 죄를 지어 마땅히 성토(聲討)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결행이 오로지 조선만을 정벌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명(明)의 (㉡)이/가 가까이서 저 해도(海島)를 믿고 미쳐 날뛰며, 우리를 등진 백성들을 받고 있으니 군대를 끌고 가서 정벌하라. 만약 조선도 취할 만하다면 함께 취하라."

- 『청태종실록』 -

(다) 조선국왕은 지금 금국(金國)과 맹서(盟誓)한다. 두 나라가 화호(和好)를 결정하였으니, 이후로는 서로 맹서를 준수하여 각자의 나라를 지키도록 하고, 잡다한 일로 다투거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요구하지 않는다. 만약 조선이 금국을 적대시하여 화호를 위배하고 군사를 일으켜 침범한다면 하늘이 재앙을 내릴 것이고, 만약 금국이 불량한 마음을 품고 화호를 위배하고 군사를 일으켜 침범한다면 역시 하늘이 앙화(殃禍)를 내릴 것이니, 두 나라 군신은 각각 신의를 지켜 함께 태평을 누리도록 할 것이다. 천지산천의 신명은 이 ㉢ 맹약(盟約)을 살펴 들으소서.

- 『인조실록』 -

<작성 방법>

○ 밑줄 친 ㉠에 해당하는 전투의 명칭을 쓸 것.
○ 괄호 안의 ㉡에 해당하는 인명을 쓸 것.
○ 밑줄 친 ㉢으로 변화한 양국 관계의 내용을 2가지 서술할 것.

10.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도광(道光) 21~22년에 있었던 전쟁 이후로 중국인들이 비로소 서양인들과 임의로 왕래하였으나 국경을 벗어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 (중략) … 아프리카 흑인들이 없어진 자리에 경작할 사람이 부족해지자, 중국인 노동자가 그들을 대신했습니다. 페루는 가장 먼저 중국인 노동자를 모아서 판매했습니다. … (중략) … 이것을 (㉠)무역이라고 하는데, 노예무역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잔악한 일들은 모두 언급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나) 근년 이래 광둥(廣東)에서 양민을 납치하여 외국에 몰래 판매하는 풍조가 날로 심해졌습니다. 그 전모를 보면 사실상 내지의 비도(匪徒) 때문이지만 외국 상인이 돈을 주고 이들에게 노동자 모집을 대리시키니, 이익을 탐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양민을 속여 유혹하거나 납치하여 외국 상인에게 파는 일이 각지에서 발생합니다. … (중략) … 만약 ㉡실제로 본인이 원해서 고용되는 것이면 정한 기일에 배에 오르는 것을 허가하지만, 지방관의 조사를 거치지 않은 외국선에 사사로이 승선시켜서 비도들의 유괴 계획을 돕는다면 단연코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다)

○ 대저 서양 각국은 모두 상업을 부강의 근본으로 생각합니다. 무릇 그 국가의 통상(通商) 항구에는 반드시 (㉢)을/를 설립해서 상인을 보호하고 가혹한 일을 만나면 수시로 논박하여 저지하니, 여행하는 자나 거주하는 자나 즐겁게 일을 합니다. 상무(商務)가 날로 번창하고 여행하는 사람이나 공예(工藝)하는 사람도 역시 가는 곳마다 편안하게 여깁니다.

○ 영국령 싱가포르 등의 지역에는 중국에서 와서 객지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와 상인이 수십만 명입니다. 그 각각의 지역에 (㉢)을/를 파견하여 그들이 탄압받는 것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중략) … (㉢) 설치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상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 (중략) … 또 하나는 통제와 감시입니다.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에 들어갈 명칭을 쓸 것.
○ 밑줄 친 ㉡이 전국적으로 가능해진 이유를, 근거가 된 조약의 명칭을 포함하여 서술할 것.
○ 괄호 안의 ㉢에 공통으로 들어갈 명칭을 쓸 것.

11.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이탈리아는 크게 두 진영으로 나뉘어 있었다. 한쪽에는 (㉠)와/과 나폴리 왕국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피렌체와 베네치아가 밀라노 공국과 함께했다. 비록 아직 전쟁의 불길이 타오르지는 않았지만, 매일 전쟁의 불길을 일으킬 새로운 불씨들이 자라고 있었다.

-『피렌체사』-

(나) (㉡)이/가 돌아온 후, 그를 돌아오게 만든 시민들과 적의 당파로부터 피해를 입은 수많은 이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부를 독차지하기로 했다. … (중략) … 그들은 공직자를 추첨하는 함에서 적들의 이름을 빼내고 친구들의 이름을 집어넣었다. … (중략) … 그러고 나서 그들은 공직자를 추첨하는 관리가 정무위원 가운데 누가 퇴임할지 혹은 누가 새로 임명될지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 법령을 제정했다.

-『피렌체사』-

(다) ㉢그동안 이탈리아는 히브리인보다 더한 노예이자 페르시아인보다 더한 종복으로 … (중략) … 수장도 없고 질서도 없이 두들겨 맞고 빼앗기고 찢기고 짓밟히면서, 모든 종류의 파멸을 견뎌왔습니다. … (중략) … 이탈리아의 상황을 보건대, 이제 기대를 걸 대상은 당신의 ㉣가문밖에 없습니다. 운과 덕을 겸비하고 있고, 신과 교회로부터 비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선두에 설 수 있습니다. … (중략) … 그러므로 당신의 ㉣가문은 정의로운 일이라면 지니게 되는 기백과 희망을 가지고 이 임무를 받아들이십시오.

-『군주론』-

<작성 방법>

○ 괄호 안의 ㉠에 들어갈 국명을 쓰고, 괄호 안의 ㉡에 들어갈 인명을 쓸 것.
○ 밑줄 친 ㉢의 이유를 (가)를 참고하여 서술할 것.
○ 밑줄 친 ㉣의 집권 이후 나타난 정치체제의 변화를 (나)를 참고하여 서술할 것.

12. (가)는 홍 교사의 고등학교 한국사 수업 계획의 일부이고, (나)는 수업 공개 이후의 교과 협의회 장면이다.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홍 교사의 한국사 수업 계획

1) 학습 목표
1.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의 참상을 회고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2.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념비* 2개를 비교하여, 설립 주체에 따른 역사 인식의 차이를 탐구할 수 있다.

* 추념비 : 죽은 이를 기리는 비석

2) 학습 과정
- 1단계 : (A) 회고록을 바탕으로 역사적 상황 파악하기
- 2단계 : (B-1), (B-2) 추념비를 비교·분석하기
- 3단계 : 두 추념비에서 역사 인식 차이를 확인하기

3) 교수·학습 자료

(A) 1923년 9월 2일 오후 8시쯤 해가 지고 이제 어둑어둑한 황혼, 약 십분 동안이나 걸었을 것이다. 이때 난데없이 총, 칼, 몽둥이, 돌, 도끼, 부삽 등 살인무기를 들고 '조선 사람을 죽여라'하는 군중의 고함 소리가 천지를 진동한다. 아! 이것이 무슨 불길한 소리이며 무슨 벼락이냐? 둘러보니 전봇대나 벽, 게시판 등에 '조선 사람을 경계하라'는 청천벼락의 삐라가 각처에 붙어 있지 않은가? 이 골목 저 골목에서 무기를 든 사람들이 눈이 빨개가지고 한국 사람을 찾고 있다. … (중략) … 내 주머니에서 나의 명함이 나왔다. 그 자는 명함을 흔들면서 '이놈이 한국 놈이구나'하고 군중 앞에 고함을 지른다. 군중은 '죽여라 죽여라'하고 모두 외치면서 우리에게 달려든다. 한 자는 칼을 빼가지고 나를 찌르려 한다.

- 한승인, 『동경이 불탈 때』(1973) -

(B-1)
[관동진재 조선인 희생자(犧牲者) 위령비](1952)
다이쇼 12년(1923)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이 동란을 일으켰다는 유언비어에 의해, 도쿄 방면에서 온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비참한 최후를 마쳤다. … (하략) …



(B-2)
[관동대진재 시 한국·조선인 순난자(殉難者) 추도지비](2009)
1923년 관동대지진 당시 수많은 한국·조선인들이 일본의 군대, 경찰, 유언비어를 믿은 민중의 손에 살해되었다. 도쿄의 시타마치 일대에서도 식민지 치하의 고향을 떠나 일본으로 온 사람들이 이름조차 알려지지 못한 채 귀한 목숨을 빼앗겼다. … (하략) …



(나) 교과 협의회

윤 교사 : 관동대지진을 직접 경험한 한승인의 회고록을 이용하여 당시 긴박한 상황을 보다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 회고록을 수업 자료로 활용하였는데, 이때 어떤 점에 유의하였는지 궁금합니다.

홍 교사 : 예. 회고록이 지닌 ㉡ 역사 자료로서의 측면과 ㉢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였습니다. … (중략) …

박 교사 : ㉣ 두 추념비의 설립 주체가 관동대지진 당시의 역사 행위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차이를 생각해 보게 한 교사의 질문이 좋았습니다.

<작성 방법>

○ 밑줄 친 ㉠에 해당하는 내용을 밑줄 친 ㉡과 ㉢의 측면에서 각각 1가지 서술할 것.
○ 밑줄 친 ㉣에 해당하는 교사의 질문을 2가지 서술할 것.

<수고하셨습니다.>